



제목	보편공의회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문도출판사
발행일	2005. 1. 1.
저자	클라우스 샤텡 이종한 옮김
출판도시	왜관
페이지수	432
ISBN 또는 ISSN	978-8941905011

내용 요약

이 책은 ‘어떤 공의회가 보편적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공의회 제도의 기원과 기독교 2천년 동안 개최되었던 보편공의회를 연구한 책이다. 저자에 의하면, ‘보편 공의회’라는 개념은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저자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따라 공의회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은 ‘고대의 황제 중심 제국공의회들’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공의회는 8,9세기까지 개최된 초기 일곱 차례(또는 여덟 차례)의 공의회들이다. 이 공의회들은 로마가톨릭교회와 정교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다. 이 공의회들은 비잔틴 황제가 소집했고, 콘스탄티노플과 그 인근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 대부분이 동방 주교들이었고, 공의회 결의들은 비잔틴 제국의 법으로 발효되어 교회 전반에 수용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서방 그리스도교계의 중세 공의회들’이다. 이 유형의 공의회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교황 중심 공의회’이며, 다른 하나는 ‘공의회 우위설적 공의회’이다. 전자의 특징은 교황이 주도했고 교회의 모든 신분들이 참석했으며 정치적 문제들도 다루었다는 것이다. 후자는 그리스도교계 전체의 회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세 번째 유형은 ‘근(현)대 가톨릭 교파교회의 공의회들’이다. 이 유형의 공의회들은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서방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의회가 아니라 가톨릭교회만의 회합이다. 이 공의회에서는 주교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요 사제수도회의 대표자들만 참석권한과 발언권한과 표결권한을 부여받았다.